

진도군수협 로컬푸드 커뮤니티센터, 하반기 개장 준비 '박차'



대도시 판로 확대...농수산물 유통 허브 구축·안전한 먹거리 제공 직거래로 저렴·신선한 농수산물 제공·소규모 농어가 판매망 확충

진도군수협 로컬푸드 커뮤니티센터가 올해 하반기에 개장한다. 소규모 농어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주민과 관광객들에게는 건강한 지역 먹거리를 제공하는 진도군수협 로컬푸드 커뮤니티센터가 오는 10월 본격 개장 준비에 한창이다. 진도군수협 로컬푸드 커뮤니티센터는 총사업비 123억원이 투입돼 진도읍 동의 1길 부지에 연면적 5,642㎡, 지상 3층 규모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전체 매장 구성은 1층은 지역 농수

산물 판매와 다양한 소비자 욕구 만족을 위한 로컬푸드 코너 등이 마련된다. 2층은 푸드코트, 카페, 저온저장시설 등 소비자 편의시설이 들어서며, 3층은 사무실과 대회의실, 주차장 등을 갖춘 복합시설물로 이뤄진다. 농어가 소득 증대를 위해 관내 113개 농어가에서 생산한 지역 농수산물 350개 품목이 판매될 예정이다. 진도군수협이 직영으로 운영하며, 직매장의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해

시험 운영 기간을 거쳐 생산 농어가 출하 품목 정비 및 소비자 홍보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진도군은 로컬푸드 커뮤니티센터를 바탕으로 대도시 판로를 확대해 농수산물 유통 허브를 구축하고, 지역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 기반을 만들어간다는 목표이다. 특히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직거래, 소비자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 신선한 농수산물 제공, 중간 유통이 없어야 가격 저렴, 소규모 농어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가 예상된다. 진도군수협 관계자는 "진도군수협 로컬푸드 커뮤니티센터는 단순한 먹거리 판매 공간을 넘어 지역의 관광전략으로 지역의 성장을 이끄는 동력이 될 것"이라며 "농수산물 생산부터 판매에 이르는 체계적인 관리를 바탕으로 보배섬 진도군의 농수산물을 전국에 알릴 수 있겠다"고 말했다. 이동진 진도군수는 "소규모 농어에게는 안정적인 소득 창출 기회를, 소비자에게는 건강한 지역 먹거리를 제공하고 지역민에게는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해 이를 토대로 지역의 특색을 살린 먹거리 체계를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진도=조상용 기자

해남군, 고품질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박차'

올해 2562ha 조사료 종자 공급

해남군은 농가 경영비 절감과 자급을 향상을 위한 조사료 생산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올해 군은 관내 한우, 젖소 사육농가 및 조사료 경영체에 사료작물 종자 128톤을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 공급되는 조사료 종자는 2,562ha 규모 파종양으로 봄, 가을 연 2회에 걸쳐 축산농가에 공급한다. 하계작물은 수단, 옥수수 및 기타 사료용 피 등 종자를 읍·면을 통해 신청을 받았으며 3월경 해남진도축협에 1차 189ha, 9톤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2차 동계작물 종자 2,373ha, 119톤에 대해서도 읍·면사무소에 8월 말까지 신청을 받아 해남진도축협을 통해 9~10월에 공급할 예정이다. 지원 형태는 보조 30%, 자부담 70%로 지원된다. 수확된 곤포사일리지 수량을 확인 후 면적방식 또는 전량계근하여 제조·운송비도 지원한다. 현재 논에서 자라고 있는 조사료인 이탈리아 라이그라스는 지난해 9~10월에 파종한 동계 조사료로 총 3,187ha가 파종되어 올 5월경 수확할 예정이다. 동계작물인 이탈리아 라이그라스는 대부분 영양소 함량이 높고 풀이 부드



러워 소들이 잘 먹고 사료 가치가 높으며 국내 육성품종 또는 수입 적응성 인증품종이다. 군 관계자는 "조사료 재배는 농경지의 토양 개선, 축산 생산비 절감, 수입 조사료 대체 등 1석 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품질 좋은 조사료 생산을 위해 봄 가뭄 피해 방지 등 재배지 관리와 하계 사료작물 재배 확대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기동취재본부

강진군 신활력아카데미, 목공·가드닝 교육 큰 호응 속 마무리

조합원 74명 대상...푸소로고 목재 화분 제작·작품 만들어



강진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단장 김치형)은 지난 1월 20일부터 2월 18일까지 강진 푸소(FUSO) 협동조합 조합원 74명을 대상으로 '신활력

아카데미 마스터과정·목공·가드닝 실습교육'을 진행했다. 강진 푸소(FUSO) 협동조합은 기존 '푸소체협연구회'가 신활력플러스사업의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협동조합으로 거듭난 모범사례이다. 체험관광, 생활관광 등의 분야에서 앞으로의 역할이 기대되는 협동조합이다. 이번 교육은 사회적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며 20명 내외를 1반으로 구성해 총 4개 반으로 운영됐으며 목공실습에는 '강진목공체험장' 김정근 대표, 실내·외 가드닝 교육에는 '강진힐링센터' 서정미 대표가 강사로 참여했다. 강진=김영일 기자

완도군, 40억 투입 '가리포 노을길' 조성

완도군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총 사업비 40억 원(국비 100%)을 투입하여 '가리포 노을길'을 조성한다. '가리포 노을길'이 조성될 가리포 10리(4km)는 완도읍 대신리에서 군외면 대문리까지 이어지는 해안도로(국도 77호선)를 따라 해안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곳이다. 가리포 노을길은 4가지의 테마로 조성된다. 관광지와 연계한 '완도 명소길', 주변 마을 주민들의 삶 등 가리포 고유의 정서를 담은 '완도 흔적길', 어촌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완도 마늘길', 해안 길을 따라 걸으며 노을을 감상할 수 있는 '완도 해안길' 등이다. 노을길에는 미소공원, 갯바람공원, 일몰공원 등 3개의 공원이 있어 지나는 길에 공원 쉼터도 이용할 수 있다. 주변 관광지인 소재포 세트장과 완도수목원을 연계하고, 포토 존과

조형물 등도 설치할 예정이다. 가리포 노을길이 조성되면 단절된 공간이 복원되고 관광 자원 간 연계성을 통해 관광 활성화로 지역 경제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상반기에는 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고 하반기에는 시설 공사를 추진하여 2024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완도만의 특색을 살린 관광 자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관광산업에 활기를 불어 넣겠다"고 말했다. 완도=이민혁 기자

장흥군, 나무 30만그루 식재 '탄소 중립' 기반 마련

조림사업 12억원 투입...기후변화 대응·탄소중립 실현

장흥군은 2022년 30만 그루의 나무를 심어 탄소중립 기반과 안정적인 목재공급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조림사업은 경제수 조성 78ha, 큰나무 조림 19ha, 지역특화 조림 42ha, 내화수림대 3ha 등 총 142ha(29만 2천본) 규모로 진행된다. 이번 조림사업은 입목 벌채를 완료한 임야를 대상으로 기후 변화 대응과

목재이용 증진 및 국산 목재 공급 확대를 목표로 추진한다. 편백, 백합나무와 같은 경제 수종은 물론, 장마철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 예방용 큰나무(편백 4년생)를 재해 우려지에 우선 식재하고 있다. 산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옷, 두릅, 읍나무 등 비교적 단기간에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수종을 식재하는 등 지역특화조림도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은 경작을 못하고 있는 전, 답을 발굴해 나무를 식재하는 유휴토지 사업을 추진해, 산림의 공익적 가치와 산주의 소득창출을 동시에 이루 나갈 방침이다. 총 12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이번 사업은 조림수종이 건강하게 활착할 수 있도록 4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조림 완료 후에는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등 지속적으로 산림을 가꾸어갈 계획이다. 장흥=김도영 기자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으로!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